

민주 전북선대위 구성 임박... 2030표심 절실

중앙당도 선수 중심 중량감 포진 배제 방침, 젊은세대 겨안자 부심
광주시당은 현역의원 배제 2030세대들이 선대위원장 맡아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장 중심 젊은세대와 소통
김용호 도지사 후보군 기초의원 청년후보군 보폭 넓혀

서울=강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2030세대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쟁 진영인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와 소통에 공을 들이면서 과거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넓게는 40대까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에 착안, 중앙당 선대위는 물론 광주 시당도 2030 청년 인사들을 전면배치하는 등 젊은 선대위를 적극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지역선대위가 28일 광주에서 출범했다. 이번 일정 중 광주 선대위 출범식일정이 선대위 쇄신의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광주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쇄신 의지에 발맞춰 2030 청년

들이 선대위원장에 전면 포진했다.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을 제외한 9명 모두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만18세로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됐다. 여성 5명, 남성 5명으로 남녀 비율도 균형을 맞췄다. 선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를 지휘할 상임선대본부장, 대변인단 등 주요 직책에도 청년들이 대거 포진했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대위 상임고문 위치에서 지역 활동을 책임지며 젊은 선대위를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쇄신 바람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정운천 도당위원장(비례대표)을 간판으로 전북지역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2030 청년들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지역 갈등과 국민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장흥 한라네 소머리국밥집에서 농축수산인물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 위원장인 김용호 변호사는 내년 6·1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년 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개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29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2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의 지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여론 격차가 확연하게 좁혀지면서 곧 역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 바닥민심이 변할 것이다. 청년세대들이 아우르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선대위, 온·오프라인 '대국민 소통의 장'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

'국민 중심 선대위'로의 쇄신을 선언하고 힘차게 출발한 '전 국민 선대위'가 대선D-100일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D-100일 전 국민 선대위 -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행사가 2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전 국민 선대위의 힘찬 출발을 알린 지난 22일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로, 남은 100일 동안 더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국민중심, 현장중심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참가자 99명과 오프라인 참가자 99명이 참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포함한 100명의 국민이 대형스크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서남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민발언 ▲후보발언 ▲현장소통 ▲기념촬영 ▲하이터치 등의 순서가 차례로 이어진다. 먼저, '내가 이재명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발언'순서에서는 온라인 참가자99명 가운데 세대, 성별, 직업별로 선정된 각계각층의 국민대표 7인이 각각 2분씩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영희 기자

정책역량 입증받은 윤준병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법·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노동 현안 해결 대안 제시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성실함과 정책역량을 입증받았다. 윤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 회복·개혁 완성·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역할에 훌륭히 수행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안과 함께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 유해성 문제, 방치된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와 가스히트펌프(GHP) 배출 허용기준 재조정, 주방용 오물분쇄기제품의 환경 악화 문제 등 환경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실태와 근로감독 권한의 사도지사 공유 등 정부의 근로감독 체계에 혁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청년실업 해소와 임금체불·중간착취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직장 내 괴롭힘과 괴로사 문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노동 현안들을 짚어보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받아 2년 연속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기후, 고용노동 분야를 총괄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환경·노동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해결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노동 현안들을 짚어보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받아 2년 연속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기후, 고용노동 분야를 총괄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환경·노동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해결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DY 복당 임박, 전북 정치권 요동

이재명 대선 후보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복당 요청
정 전 의장과 함께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복당 여부 관심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임박한 것으로 감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동영(사진),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권 인사의 복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당장 민생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무소속 등 야권 인사들의 임복당이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른바 이달 말 정대철, 정동영 전 의원을 비롯한 탈당한 호남 인사들과 만나 복당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전남 신안군 닥터헬기계류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이런저런 사유로 많이 분열됐고 그게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며 "내년은 매우 중요한 대사(大事)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중 하나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꼭 민주계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부패 사범, 파렴치범 그래서 탈당하거나 제명된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따지지 말고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가 시정을 언젠가 정해서 별첨이나 제제나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함께 할 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와 정동영 전 의원의 인연은 각별하다. 인권변호사로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후보인 정동영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호흡했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조직,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28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뒤에서 도왔다"고 말했다. 일각의 전면 배치설에 대해 선을 그은 정 전 의원은 "뒤에서 조용히 돕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4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로 2번째 출마했을 당시 후보 출정식에서 몇몇 후 이재명 시장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 나설 것 같다. 그 때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내가 돕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복당과 통합에 대해선 "전라도 사투리로 부지깽이라도 빌려야 된다. 대선때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신는 공공광고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